

교회 소식

예배

- 1.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2주년 감사 및 추계부흥성회**
 주제: "감사와 찬양"(시 118:29)
 11월 5일(수) 오후 7시 45분 / 엄진용 목사(여의도순복음문막교회)
 11월 6일(목) 오후 7시 45분 / 이재순 목사(순복음살롱교회)
 11월 7일(금) 오후 8시 10분 /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추계부흥성회때 교회버스 1호차와 2호차 운행을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금요성령대망회보다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금요일은 기존 시간과 동일합니다.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 1.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매주일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2. 유아유치부 전도 모임
 일시: 매주일 오전 10시 45분 / 교회 옆 놀이터

안내

- 1. 미얀마 RTN순복음교회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감사의 2주년, 기쁨으로 세우는 교회"
 일시: 11월 2일 오후 12시~3시
 장소: 교회 1층 및 앞마당
 *물품기증은 각 선교회 담당교역자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경대학
 일시: 매주일 오후 1시 30분~3시(12주간)
 장소: 소예배실
3. 분리수거
 각 기관과 선교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 1. 헵시바 워십선교단 단원모집**
 모임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 유아유치부실
 문의: 양하영 목사

후원 선교사 / 교회

<후원 선교사> <후원 교회>
 네팔_김진만 선교사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레바논_김중현 선교사
 미얀마_배수현 선교사

온/라/인/헌/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예배와 교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교회학교 주일예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정기예배

새벽예배(월)	오전 5시 30분	대성전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예배(위성)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유튜브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교/회/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하/남/기/도/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홈/페이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10월 19일

통 3권<제 42호>

주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아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교회

주/일/예/배	*다같이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시 119:72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546장(통 399)
대표기도	1부	김경채 전도사
	2부	김병환 장로
	3부	김영진 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시 1:1~6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복있는 사람 Ⅱ”
	4부(위성)	이영훈 목사
	4부(청년)	조영태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김승호 안수집사
	2부	전우청 안수집사
	3부	윤재선 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금/요/성/령/대/망/회	10월 24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김병환 장로	임경린 안수집사	

예/배/위/원	10월 26일 주일 10월 31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해숙 전도사	이현식 안수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송원홍 협동장로	임경린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김병환 장로	유정열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망회	찬양팀	이화수 권사	안원준 안수집사	

“복있는 사람 Ⅱ”(시편 1편 1~6절)

복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시 84:5~7).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자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알려줍니다.

1. 복 있는 사람의 길(의인의 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만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며, 한 가지를 즐거워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악한 도모나 계획,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불경하고 불의한 자의 꾀를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삶의 방식이나 악한 관행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비웃는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죄는 함께 걸다가 따르게 되고, 따르다가 함께 앉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심화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의 진행을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이고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삽니다. 풍성한 열매와 건강과 형통한 삶과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 복 없는 사람의 길(악인의 길)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 잡혀 갇힌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며, 행복과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길은 의인의 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알곡과 분리되어 버려지는 껍질입니다. 이들은 쉽게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악인의 삶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으며, 이들의 삶은 일시적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은 의인들처럼 견고히 서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상급이고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이며, 징계와 저주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성된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참 회개가 없으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며,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선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유혹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뿌리가 됩니다. 셋째, 죄의 점진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작은 꾀에서 시작하여 결국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죄의 진행을 경계해야 합니다.